



WITH BIBLE

WITH BIBLE

2025

CAMP

JAN. 9-11

당신에게 문명처럼 찾아온 복 이야기

모압 평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1절

이스라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전무후무한 신의 개입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던 강대국이 열 가지 재앙으로 망하게 되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동시에 그들을 추격하던 병거와 군대는 몰사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수많은 백성이 먹을 음식은? 마실 물은? 여기저기 매복하고 있는 오랑캐 같은 민족들이 공격하면? 병기도 없고 훈련도 안 된 백성과 그들의 처자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염려하다 못해 원망하고 불신했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의 하나님은 매일 광야에 음식이 내리게 하셨다.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다. 전술도 전력도 거의 없드시피 한 백성들 앞에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해서 불신과 불순종을 일삼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 광야의 방황을 모두 마치고 약속을 받은 다음 세대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였고,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한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여호수아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했다. 그 설교를 통하여 모세는 그들이 얼마나 복 받은 백성이었는지, 또 그 복을 어떻게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인지를 선포한다.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겨울로 옮겨진 첫 **워드바이블 캠프**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은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복을 기원해 줍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실패한 것일까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다시금 그들에게 받은 복을 기억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베풀어주실 복을 기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권면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HK라이트하우스: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가리길 212

이번 캠프의 제목은 “**당신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복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신명기**를 제대로 배워보려 합니다. 단순히 신명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지 배우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신명기에 약속된 복을 더욱 풍성히 그리고 온전히 맛보고 있는지 깨닫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보다 여호와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이렇게 기쁨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피차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받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신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주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로 평생에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세상이 그들을 정복하신 주님 발 앞에 굴복할 것이고,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 서로에게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자리에 함께합시다! 당신에게 참된 복을 빌어주기 원합니다!